

金庸 武俠小說의 사회 문화적 함의 고찰

禹 康 植*

<目 次>

- | | |
|------------------------------|----------------------------|
| I. 서론: 문화현상으로서의
金庸 武俠小說 | III. 자민족 중심의 민족관의
변화 확대 |
| II. 俠의 利他主義를 통한 사회적
공능 강조 | IV. 전통 관념의 비판과 수용 |
| | V. 나오면서 |

I. 서론: 문화현상으로서의 金庸 武俠小說

20세기 중국 문단에 金庸 武俠小說의 출현은 학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실로 적지 않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 시작하여 대륙에서도 본격적으로 金庸의 무협소설을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현상들을 진단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초기엔 무협소설 애호가들이 중심이 되어 그 문학적 가치와 예술성을 치하하는 것이 주된 연구 방향이었지만, 이후 嚴家炎·陳平原·陳墨 등이 나와 전문적으로 金庸의 무협소설을 분석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이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무협소설을 단순히 소일거리로 접하는 대중문학의 한 장르로 인식하고 유행하는 일련의 무협소설 독서현상을 한시적인 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나아가 무협소설 장르 자체를 봉건의 식과 미신·신비주의 등에 빠져 독자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는 상업지

* 서라벌대학 중국관광비즈니스과 전임강사

상주의의 산물이라 비평하고 있다.¹⁾ 작가 자신도 무협소설 장르 자체가 오락성을 지닌 문학 장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또 무협소설 창작에 임하는 태도 역시 흥미와 오락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지만,²⁾ 중요한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 폭넓은 무협소설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고, 독서 현상이 유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학 장르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볼 때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학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대중성과 함께 학술 문화적인 의의가 내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金庸의 무협소설을 비롯한 무협소설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배경은 무엇이며,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부감 없는 수용 이면에 어떤 문화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나하는 것이다. 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오랜 俠文化 전통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 없는 친숙한 수용에 있다고 하겠다. 소설 속에 역사와 지리, 풍속, 종교, 민족 등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이 거부감 없는 친숙한 수용을 이끄는 구체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본고는 일련의 독서현상에서 출발하여 金庸 무협소설에서 그려진 협의정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족문제, 예교문제에 관해서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는 金庸 무협소설이 지닌 문화적인 코드를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고, 이를 통해 중국 俠文化의 함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 1) 鄢烈山的〈拒絕金庸〉(〈南方周末〉, 1994년 12월 2일)과 謝桃坊의〈蒙昧的幻想與抗爭的歧途〉(《社會科學研究》, 1997년 3기, 王朔의〈我看金庸〉(〈中國青年報〉, 1999년 11월 1일)이 대표적이다.
 - 2) 江堤·楊暉編, 《金庸: 中國歷史大勢》(長沙: 湖南大學出版社, 2001), 105-118쪽 참조.

II. 俠의 利他主義를 통한 사회적 공능 강조

“俠義精神”은 무협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俠客은 바로 俠義精神이 충만한 사람들을 말한다. “俠”은 일반적으로 “義”와 병행해서 언급되어지는데, 唐의 李德裕는 <豪俠論>에서 “대저 俠이라는 것은 대개 일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절기를 근본으로 삼아 행하였다. 義는 俠이 아니면 설 수 없으며, 俠은 義가 아니면 완성될 수 없으니 함께 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夫俠者, 蓋非常之人也. 雖以然諾許人, 必以節氣爲本. 義非俠不立, 俠非義不成, 難兼之矣.)”³⁾라고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俠”은 “義”를 통해서 그들의 기절과 윤리도덕이 완성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고려하는 정신이라 하겠다. 劉若愚는 《中國之俠》에서 중국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俠士들의 俠義 행위를 결정하는 俠의 신념을 여덟 가지로 개괄하고 있다. 즉 남을 돕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助人爲樂), 公正, 自由, 知己에 충성하는 것(忠於知己), 勇敢, 성실하고 신뢰할 만함(誠實·足以信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愛惜名譽), 기개 있고 재물을 가벼이 여김(慷慨經財)이 바로 그것이다.⁴⁾ 劉가 언급한 俠의 특징은 모두 “義”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俠의 본질적 성격이 義를 추구하는 것이며, 義의 구체적인 실천이 俠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줄곧 俠을 거론하면서 義의 작용을 중시하였다. “義”는 信義, 忠義, 教義, 節義 등등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도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실천윤리이다. 《荀子》<勸學>에는 학문하는 순서와 목적을 말하면서 “학문을 하는 순서로 본다면 끝이 있겠지만, 그 義를 가지고 본다면 잠시라도 버려두어선 안 된다. 그것을 한다면

3) 董誥編, 《全唐文》, <豪俠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3224 쪽

4) 劉若愚, 《中國之俠》(上海: 上海三聯書店, 1991), 4-6 쪽 참조

사람이고, 그것을 버린다면 금수인 것이다(學數有終, 若其義則不可須臾舍也. 爲之, 人也; 舍之, 禽獸也.)⁵⁾라고 하였다. 순자는 義의 유무가 사람과 금수를 구별하는 측도라고 하면서 義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강조하였다. “俠義精神”은 “義”를 추구하는 정신문화 배경 안에서 형성 발전되어진 것이라 하겠고, 협은 이렇게 형성된 협의정신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상을 펼치고 강호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때문에 강호세계에서 義는 단지 俠의 행위 일체의 준칙일 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의식의 적극적인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협객들의 기본적인 인격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⁶⁾

漢의 사마천은 일찍이 遊俠에 전을 지으면서 “그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며, 그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이미 허락한 것에는 반드시 성실히 한다(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고 유희의 특징을 밝힌 바 있다. 사마천이 진단한 협은 義를 성실히 이행하는 인물이라 하겠고, 이러한 기질이 중국 전통 협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이라 하겠다. “장부가 한번 내뱉은 말은 사두마차로도 따라잡지 못한다(丈夫一言, 駟馬難追)”라는 말처럼 협에게 있어 신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무형의 약속이라 하겠다. 정리하면, 협의정신은 義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이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협의정신의 구체적인 실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利他主義”의 실현에 있다고 하겠다.

金庸은 《飛狐外傳》의 <後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소설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 협을 행하고 정의를 받드는 협사를 그려내려고 하였다. 무협 소설 가운데 진정으로 협사를 다룬 작품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닌데, 대다수 주인공들이 하는 행위들은 주로 武이

5) 荀況著, 蔣南華等譯注, 《荀子全譯》(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8쪽.

6) 汪湧豪, 《中國遊俠史》(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261 쪽 참조.

지 俠이 아니다. 맹자는 “부귀하나 능히 음란하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천하여도 능히 절개를 변하지 않으며, 위엄과 무용에도 능히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무협시 인물은 부귀와 빈천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고, 더욱이 위엄과 무용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대장부의 세 가지 표준이라 할 수 있다.⁷⁾

비록 작가 자신도 자신의 소설 속에 대다수 협객들의 행위가 武에 치우침을 개탄하고 있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정의를 만드는 협사가 그의 소설 창작의 주된 사상적 배경이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梁羽生은 일찍이 <金庸梁羽生合論>에서 “무협소설에서 俠은 武보다 중요하다. 俠은 영혼이고, 武는 껍질이며, 俠은 목적이고, 武는 俠을 달성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金庸 무협소설에서는 武가 많고 俠이 적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동이 적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⁸⁾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金庸은 부귀와 빈천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엄과 무용에는 굴복하지 않는 인물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장부의 세 가지 표준은 그가 창작 활동을 통해 인물에게 부여하고자 한 협의정신이라 할 수 있겠고, 이는 사마천이 《史記·遊俠列傳》에서 朱家와 郭解 등의 형상을 통해 기술한 협의 성격의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利他主義 정신의 구현은 金庸의 무협소설관이라 할 수 있겠는데, 《飛狐外傳》에서 狐斐는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鍾阿四 일가가 鳳天南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추적해 그를 죽여 원한을 갚아주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라든지, 《神雕俠侶》에서의 郭靖과 《天龍八部》에서 蕭峰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헌신적 행위 등등은 바로 利他主義에 입각한 협의정신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7) 我企圖在本書中寫一個急人之難·行俠仗義的俠士。武俠小說中真正寫俠士的其實并不很多，大多數主角的所作所爲，主要是武而不是俠。孟子說“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武俠人物對富貴貧賤并不放在心上，更加不屈于威武，這大丈夫的三條標準。(金庸, 《飛狐外傳》<後記>, 北京: 三聯書店, 1999, 이하 金庸 작품의 원문 인용에 따른 出版地·社·年은 생략함)

8) 劉維群, 《梁羽生傳》(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99), 346 쪽 참조

중국의 사회는 역대로 질서 있는 통치를 하지 못했다. 법률관념도 강하지 못했고, 사회조직도 엄밀하지 못했기에 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단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국가의 법령은 그리 중시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멸시하고 깔보았다. 통치자가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또한 작은 단체를 이루어 반항하고 서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의기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사회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하층 사회일수록 더욱 의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대부계급은 그러하지 못하였다.⁹⁾

중국 고대 사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즉 강자와 약자의 종속관계로 유지되는 사회조직 속에서 백성들은 국가의 법령에 의해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존속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핍박받는 하층 백성은 항상 고난이 거듭되는 일상을 탈출하고자 갈망해왔다. 때문에 통치계급의 울타리를 벗어나 그들만의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강호와俠은 모종의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염원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공간이고 안식처라 하겠다.

秦의 중국 통일 이후 협과 협문화는 기존 정권에 대항하는 파괴 세력으로 인식되어져 부정되어지고 핍박받아 왔다. 5·4 신문화 혁명을 거치면서 비록 소설의 지위는 제고되었지만, 무협류의 작품들은 여전히 협은 “以武犯禁” 한다는 봉건 관념이 유지되어진 채 문학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왔다. 그래서 이들 작품들이 독자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한다는 이유 아래 다시 수 십 년을 두고 무협소설은 정책적으로 禁書화 되는 상황을 맞아야 했었다. 嚴家炎은 《金庸小說論稿》에서 무협소설이 부정적인 도서로 치유되면서 비판받는 일련의 시각을 두고 6·70년대 신문지상에 빈번

9) 中國社會，從來不是很有秩序的統治，法律觀念不強，社會組織也不是很嚴密，每個人爲了求生存，必須要互相幫助·互相團結，相形之下，國家的法令就看得不重，甚至藐視。在統治者壓迫他時，他也必須借小團體來反抗·互相保護。中國從古到今這樣重義氣，事實上和社會背景有關，而且愈是下層社會愈是講義氣，士大夫階級就不行了。(於帆，〈赤字衷腸俠客行〉，江堤，楊暉編，《金庸：中國歷史大勢》，長沙：湖南大學出版社，2001，제67쪽.)

하게 보도된 백 여 건의 강도 상해 사건과 결부하여 사람들을 연약하고 무능하게 만든다는 무협소설을 철저히 부정한 이후 사람들은 왜 용감하게 변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던지고 있다.¹⁰⁾ 물론 일부 무협소설이 여전히 선정적이고 오락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단순한 폭력 미학적 서사로 일관되기도 하지만, 전체 무협소설이 그러하다는 것은 일부를 두고 전체의 성질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하겠다. 곧 俠의 利他主義 사상에 의거한 협의정신이 지닌 사회 문화적인 공능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 사상계의 윤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金庸 무협소설이 20세기 후반 중화문화권에 폭넓게 수용된 주된 원인을 이러한 점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다. 말하자면 필요하지만 현대 사회에 결핍된 사상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金庸은 《神雕俠侶》〈後記〉에서 무협소설의 공능을 밝히고 있다.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과 감정은 사회적 의의보다 더 중요한 점을 갖추고 있다. 광징이 말하는 ‘爲國爲民 俠之大者’란 구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커다란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장래에는 국가란 개념도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愛國이니 抗敵이나 하는 관념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지만 부모, 자녀, 형제간의 정이나 순수한 우정, 사랑, 정의감, 착함, 용감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사회를 위해 헌신 등의 감정과 덕성 등은 금후에도 여전히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찬미되어질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 이론이나 경제 제도, 종교 신앙 등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다.¹¹⁾

10) 嚴家炎, 《金庸小說論稿》(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4-21쪽 참조.

11) 在小說中, 人的性格和感情, 比社會意義具有更大的重要性. 郭靖說: ‘爲國爲民, 俠之大者’, 這句話在今日仍有重大的積極意義, 但我深信將來國家的界限一定會消滅, 那時候‘愛國’·‘抗敵’等等觀念就沒有多大意義了. 然而父母子女兄弟間的親情·純真的友誼·愛情·正義感·仁善·勇於助人·爲社會獻身等等感情與品德, 相信今後還是長期的爲人們所讚美, 這似乎不是任何政治理論·經濟制度·社會改革·宗教信仰等所能代替的.(《神雕俠侶》〈後記〉)

협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강호 세계를 통해 표현해 내고자한 작가의 무협소설관이라 할 수 있으며, 무협소설 창작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공능이라 할 수 있겠다. 주요한 것은 金庸은 비록 장래에 愛國과 抗敵 같은 구호들이 의미를 잃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호소력을 지닌 주제라 하겠다.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협의 궁극적인 작용이라 하겠다. 처녀작 《書劍恩仇錄》에서 陳家洛을 비롯한 紅花會 軍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적 행위, 《碧血劍》의 袁承志와 《射雕英雄傳》과 《神雕俠侶》에서의 郭靖, 《神雕俠侶》의 楊過를 통해 표현된 협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민족의 침략에 맞선 일련의 행위, 그리고 《射雕英雄傳》의 洪七公, 《天龍八部》의 蕭峰으로 대표되는 丐幫과 《鹿鼎記》의 天地會 軍호들의 협의행위, 《連城訣》의 狄雲, 《天龍八部》의 虛竹, 《笑傲江湖》의 令狐沖의 협의행위 등등이 있다.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愛國, 抗敵)에서 작게는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비록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민족과 국가의 대립을 통해 영웅의 형상을 그려 내는 것을 주된 제재로 삼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爲國爲民 俠之大者”의 정신에서 발전된 협의 “利他主義”는 현대 사회 대중들에게 충분한 호소력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俠의 요지는 義라 할 수 있겠고, 이는 강호인들의 처세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鹿鼎記》에서 강호의 규범을 전혀 알지 못하는 韋小寶도 天地會를 섬멸하라는 康熙의 명을 받고 義를 내세워 항변한다.

강희는 손을 뻗쳐 타자를 힘껏 내리치며 큰소리로 외쳤다. “너는 오로지 명령을 받들지 않고 반적들을 잡으러 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강희의 호걸들은 의리를 매우 중시한다. 내가 만약 사부님과 천지회 사람들을 모두 잡는다면, 황상께선 반드시 그들의 머리를 자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위소보는 친구를 팔아먹은 오삼계처럼 될 것이 아닌가! 아! 그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소계자로 가장을 했던 말인가. 소계자, 소계자, 오삼계의 작은 아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 이 백작대인도 더 이상 할 수 없겠군. 방법을 강구해서 사부님과 천지회 사람들을 도망치도록 통지해야겠군. 빌어먹을! 강희는 그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나서 호통을 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설마 네가 스스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에게 개과천신하고 공을 세워 속죄할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와 흥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위소보가 말했다. “황상, 그들이 황상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소신은 황상께 의리를 다했습니다. 황상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소신이 그 가운데 낀 격이니, 참으로 난처하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당신께 부득이 용서를 하라고 빌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의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¹²⁾

김용은 이 소설 <後記>에서 위소보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위소보는 의기를 중시하였는데, 그것은 좋은 인품과 덕성인 것이다”¹³⁾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였다. 말하자면, 강호에서 처세하고 제구실을 다하고자 하면 “義”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칙임 위소보의 입을 빌어 제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溫瑞安은 “무협소설이 무협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尚義, 重義, 道義, 俠義, 捨生取義, 朋友之義, 兄弟之義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 ‘義’자는 바로 俠’자의 요지가 되는 것이다. 무릇 불의한 것, 즉 의롭지 못하고, 의리를 버리거나 배신하는 것은 바로 협사들이 맞서 싸우는 ‘의가 없는 무리(無義之徒)’인 것이다”¹⁴⁾라고 하면서 이것을

12) 康熙伸手在上重重一拍, 厲聲道: “你是一意抗命, 不肯去捉拿反賊了?” 韋小寶心想: “江湖上好漢, 義氣爲重. 我如把師父他們都捉了來, 皇上一一定砍他們的頭. 這樣一來, 韋小寶出賣朋友, 變成吳三桂啦. 唉, 當時甚人不好冒充, 偏偏去冒充小桂子. 小桂子, 小桂子, 可不是吳三桂的小兒子嗎? 我這伯爵大人也不要做了, 想法子通知師父他們大家逃走, 滾他媽的臭鴨蛋罷.” 康熙見他不答, 心中更怒, 喝道: “到底怎樣? 你難道不知自己犯了大罪? 我給了你改過自新, 將功贖罪的良機, 却還在跟我討價還價?” 韋小寶道: “皇上, 他們要來害你, 我拼命阻擋, 奴才對你是講義氣的. 皇上要去拿他們, 奴才夾在中間, 難以做人, 只好向你求情, 那也是講義氣.”(《鹿鼎記》, 제43회, 1684 쪽)

13) 韋小寶重視義氣, 那是好的品德(《鹿鼎記》×後記)

14) 溫瑞安, 《談笑傲江湖》, 《金庸茶館》(6)(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1998), 15쪽.

구체적으로 “俠義情操”라 명명하였다. 때문에 만약 강호에서 약속한 말을 저버리거나,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며 모두에게 멸시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金庸 소설에서 張召重, 歐陽鋒, 裘千尺, 木高峰 등은 모두 고강한 무공을 지닌 고수들이지만, 강호에서 처신은 도리어 신의를 쉽게 저버렸다. 때문에 “무림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있겠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는”¹⁵⁾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강호인들의 존경을 받는지 아닌지는 모두 신의를 중시하고 지키느냐 아니냐 이점에 있다고 하겠다.

작가는 자신과 이웃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와 민족에까지, 협의 완성은 義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곧 “무협소설의 근본 관념은 구제하는 것에 있다”¹⁶⁾는 陳平原의 지적처럼 자기를 비롯한 이웃과 사회를 구제해줄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가 金庸의 무협소설의 중요한 현대적 의의라 할 수 있겠다.

Ⅲ. 자민족 중심의 민족관의 변화 확대

중국은 90%가 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지만, 다른 소수민족들 역시 각자의 문화와 언어, 종교, 사상을 가진 채 중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줄곧 민족 상호간에 평등과 단결을 국가적 시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경제적인 격차, 문화적인 낙후와 충돌, 인권 문제 등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15) 武林中人對他忌憚畏懼則有之，却無人真的對他有甚麼尊敬之意。(《笑傲江湖》，제4회, 149쪽.)

16)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北京: 新世界出版社, 2002), 207 쪽 참조.

무협소설은 정반 대립구조 속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무협소설을 “성인의 동화”라 일컫는 것은 무협소설의 공능 가운데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 직면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고,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위급함에 영웅이 출현해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족 정권과 침입에 대항하는 것은 무협소설의 이야기를 이끄는 중요한 서사 구조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¹⁷⁾ 무협소설은 격정적인 강호세계와 왕조 교체기 혹은 난세라는 역사적 사실의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시공의 배경 속에 한족을 중심으로 한 진영(正)과 이민족의 진영(邪)을 善惡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묘사한다. 金庸의 무협소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다. 《書劍恩仇錄》에서 陳家洛를 비롯한 紅花會의 강호 존재 이유는 反清復明이었고, 《碧血劍》에서 袁承志 역시 강호를 행보의 목적은 만주족의 중원 침략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으며, 마지막 소설 《鹿鼎記》에서도 韋小寶를 중심으로 한 天地會와 康熙의 대립은 결국 漢滿 민족 대립이었다. 또 《射雕英雄傳》·《神雕俠侶》·《倚天屠龍記》, 《射雕》 “三部曲”의 주된 사건의 발단은 북방 이민족 국가인 金과 蒙古의 중원 침략에 따른 漢族과의 대립과 충돌이라 할 수 있으며, 《天龍八部》에서는 기존의 양자 간의 대립구조를 넘어 宋을 비롯한 大理, 遼, 西夏, 吐蕃 등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소설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심을 이루는 것은 크게 漢族과 이민족 간의 대립과 충돌이라 하겠다. 이런 일련의 예를 통해 자칫 金庸 무협소설은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이민족간의 대립을 그린 이원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사의 주축이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이민족과의 대립이지만, 한족은 언제나 善하고 正義를 대표하며, 이민족은 언제나 惡하고 非正義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碧血劍》에서 원승지가 皇太極을 암살하기 위해서 궁궐에 잠입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17) 陳墨, 《新武俠二十家》(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2), 20-24쪽 참조.

황태극이 말했다. “남조에 곳곳에 유랑하는 도적들이 일어나는 까닭은 말하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남조의 강산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친하 백성들 모두에게 먹을 것을 있게 해 주는 일일 것이다. ……” [……중략……] “우리가 중원에 들어간 이후 반드시 새 규정을 정해 대대손손 세금을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국고에 여분이 생기면 곧 백성들에게 무료로 은량을 나누어 줄 것을 명할 것이다.”¹⁸⁾

원승지는 明의 황제 崇禎과 청의 황제 황태극에게 모두 아버지를 죽인 원한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중원을 침략하려는 황태극은 한족 왕조인 明의 존망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것을 협의 일차적인 의지라고 한다면, 원승지가 황태극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한족 왕조의 황제보다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복하여 차마 살수를 펼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협의 이차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겠다. 협의 행협의 의지에 따른 판단 기준을 통해 우리는 金庸이 이렇게 한족과 만주족, 이원적인 대립구도 속에서 이민족에게도 적절한 가능성을 부여하여 객관성을 잃지 않고 소설의 사상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현대 무협소설의 협의 형상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소설의 주제와 사상적 경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구도가 창작 초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창작 초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書劍恩仇錄》에서 漢滿의 대립구도 속에 回族의 木卓倫部의 군세고 의연한 형상을 삽입하여 그들과 홍화회와의 비교를 피하고 있다. 또 《射雕英雄傳》에서는 한편으로 몽고족의 순수함과 용맹, 의기를 강조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지닌 칭기스칸의 형상을 두각 시키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남송 한

18) 聽得皇太極道：“南朝所以流寇四起，說來說去，也只一個道理，就是老百姓沒飯吃，咱們得了南朝江山，第一件大事，就是要讓天下百姓人人有飯吃……”[……중략……]“咱們進關之後，須得定下規矩，世世代代，不得加賦，只要庫中有餘，就得下旨免百姓錢糧。”(《碧血劍》，제3회, 454쪽)

족 정부의 무패와 무능함을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天龍八部》에서 契丹族 蕭峰의 영웅적 형상과 《鹿鼎記》에서 강희 황제의 통치력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두각 시킨 것에서 金庸의 민족관의 경계가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金庸은 <金庸作品集·三聯版序>에서 자신의 소설 창작에 따른 민족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내가 초기에 지은 소설들은 한인 황조의 정통관념이 강했다. 후기에 이르러 중화민족의 각 민족을 차별 없이 대하고자 하는 관념이 基調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두 나의 역사관이 비교적 조금 진보한 까닭이라 하겠다. 이는 《天龍八部》·《白馬嘯西風》·《鹿鼎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소보의 부친은 한족, 만주족, 몽고족, 회족, 장족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소설 《書劍恩仇錄》에서 주인공 진가락이 후에 회교로 귀의한 것이라든지, 매 한 종족과 종교, 직업에는 모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쁜 황제가 있으면 좋은 황제가 있고, 나쁜 관리가 있으면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도 있는 것이다. 소설에 나오는 한족, 만주족, 거란족, 몽고족, 서장족…… 등에는 모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¹⁹⁾

중국 역사는 수 천 년을 두고 이민족의 침입, 대립, 동화, 복귀를 반복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관의 진보”라는 것은 역사가 민족간의 대립과 융합을 통해 발전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중화라 불리는 틀 속에 융합하고 각 개인의 인성과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의 작품에서는 漢·夷는, 곧 正·邪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 험에게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국가와 민

19) 我初期所寫的小說，漢人皇朝的正統觀念很強。到了后期，中華民族各族一視同仁的觀念成爲基調，那是我的歷史觀比較有了些進步之故。這在《天龍八部》·《白馬嘯西風》·《鹿鼎記》中特別明顯。韋小宝的父親可能是漢·滿·蒙·回·藏任何一族之人。即使在第一部小說《書劍恩仇錄》中，主角陳家洛后来也皈依于回教。每一个种族·每一門宗教·某一項職業中都有好人坏人；有坏的皇帝，也有好皇帝；有很坏的大官，也有真正愛護百姓的好官。書中漢人·滿人·契丹人·蒙古人·西藏人……都有好人坏人。(《金庸作品集·三聯版序》)

죽을 위하는 것이 협의 큰 것이다(爲國爲民, 俠之大者)”는 협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그렇지만 중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민족과 국가의 틀에서 正邪善惡의 관념이 이루어진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그 판단 기준을 인성을 지닌 개인에게 두는 쪽으로 변화한다. 말하자면 협의 인성과 개성에 의해 강호의 색채는 결정되는 것이지, 漢族이나 혹은 어느 다른 한 민족을 통해 강호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협의 형상이 다양해지면서 현대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金庸의 민족관은 《天龍八部》의 蕭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소봉은 한족과 거란족, 두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안게 된다. 그는 부모를 죽인 원흉을 찾아 강호를 떠돌게 되고 이러한 蕭峰을 두고 智光大師는 사건의 진실을 말해 주기 보다 “만물은 모두 한가지며, 중생은 평등하다. 성현과 축생을 차별하지 않고 똑 같이 대해야 하오. 한나라 사람이나 거란 사람도 환상이요 또 진실인 것이외다. 恩怨과 榮辱은 모두 먼지 속에 있는 것이오.”²⁰⁾라고 편협한 민족관은 배타적인 것이며, 민족을 통해 선악을 구분 짓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충고 하였다. 결국 蕭峰은 한족의 군호들에게 “대사는 漢人이니 단지 漢을 光明이라 하고 契丹을 어둠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 契丹人是 오히려 大遼를 光明이라 하고 大宋을 어둠이라 하오.”²¹⁾라고 편협한 민족관의 병폐를 깨닫게 된다. 곧 “만물이 한 가지며 평등하다”는 말은 민족간의 편견과 갈등을 넘어 대통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金庸 무협소설의 민족관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陳墨은 중원 문화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異族들이 문화적인 진화와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지만, 이는 도리어 中原 漢人들을 庸俗적이고, 保守적이며, 狹小적이고, 停滯적으로 변화하게 한 것이라고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20) 萬物一般, 衆生平等. 聖賢畜生, 一視同仁. 漢人契丹, 亦幻亦眞. 恩怨榮辱, 俱在灰塵.(《天龍八部》, 제21회, 824쪽)

21) 蕭峰道: ‘大師是漢人, 只道漢爲明, 契丹爲暗. 我契丹人卻說大遼爲明, 大宋爲暗’ (앞의 책, 제50회, 1956쪽.)

편협한 중국의 민족관을 비평하고 있다.²²⁾ 곧 金庸 무협소설은 초기의 자 민족 중심의 협소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서 후기로 오면서 시야를 넓혀 국제주의와 평화주의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鹿鼎記》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내가(康熙) 중국의 황제가 되어 비록 堯舜禹湯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온 힘을 다해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였다. 명나라의 황제 중 누구 하나 나보다 낫더란 말인가? 이제 삼변은 이미 평정되었고, 대만도 취하였고, 나찰국도 다시는 감히 변경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네. 이로써 천하는 태평해졌고 백성들은 즐거이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네. 그러나 친치회의 반적들은 반드시 朱氏의 명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백성들이 주씨 황제 치하에서 보냈던 지난날들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²³⁾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는 만주족 황제 강희의 총명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백성들이 朱氏 황제 치하에서 보냈던 지난날들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강희의 반문은 협은 민족의 편견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전체 백성의 안위를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라 하겠다. 강희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과 아울러 위소보의 부친이 한족일 수도, 만주족일 수도, 몽고족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기한다. 그래서 위소보는 중국 각 민족의 집합체적인 형상을 지닌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를 중국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융합하려고 하였다.

각도를 바꾸어 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세기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홍콩이 처한 특수한 정치 문화적 상황과 金庸의 무협소설을 비교해서 살

22) 陳墨, 《金庸小說人論》(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1999), 406 쪽

23) 我做中國皇帝, 雖然說不上堯舜禹湯, 可是愛惜百姓, 勵精圖治, 明朝的皇帝中有那一個比我更加好的? 現下三藩已平, 臺灣已取, 羅利國又不敢來犯疆界, 從此天下太平, 百姓安居樂業. 天地會的反賊定要規復朱明, 難道百姓們在姓朱的皇帝治下, 日子會過得比今日好些嗎?(《鹿鼎記》, 제50회, 1968쪽.)

떠볼 수 있겠다. 20세기 홍콩은 직간접적으로 외래의 문화와 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비록 타의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기에 홍콩의 지식인들은 외세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송위걸은 金庸의 무협소설이 외세가 통치하는 홍콩의 상황 아래 가능한 정치적 해결방안을 찾는 다기 보다는 독자들의 오락 행위를 추구하는 정서에 호소하여 유토피아 충동을 유발하고 아울러 상상적인 해결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⁴⁾ 金庸을 비롯한 신파무협소설은 홍콩의 정치문화적인 외세의 유입과 충격,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는데, 전통의 협의 관념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의미의 인성과 인생관을 제고한 것이라 하겠다.²⁵⁾ 이러한 작업의 지면에는 외래문화 융합을 거쳐 편협한 국가민족주의를 벗어나 한족이 정의이고 이민족이 비정의라는 관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전통에서 출발하여 이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IV. 전통 관념의 비판과 수용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요구사항이다. 특히 三綱五倫은 동방 정신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윤리 실천 강령이라 하겠다. 이는 君臣, 父子, 夫婦, 朋友, 長幼 등 사회 체제를 구성하는 각종 인간관계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24) 宋偉傑, 《從娛樂行爲到烏托邦衝動——金庸小說再解讀》(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9), 141-142쪽 참조.

25)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는데, 내적으론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한 전통의 협의 형상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외적으론 상업화에 따라 오락을 추구하는 사회심리에 부응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羅立群, 《中國武俠小說史》(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0), 276-278쪽 참조).

할 도리로 국가와 가정 체제 그리고 사회질서를 원만히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魯迅은 《狂人日記》를 통해서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예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예교(吃人的禮教)”라고 하였다. 이는 봉건 예교가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나약하게 만들어 당시 중국을 무기력하게 하였다는 것에 대한 신시기 지식인의 애국심의 발호였다. 그렇지만 문제는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예교를 진부한 봉건시대의 산물로 보고 부정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 도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음성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와 더불어 윤리도덕의 심각한 와해 현상이 파생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6·70년대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강력사건들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무협소설이 많은 대중들에게 읽혀지는 주된 원인을 바로 강호라는 허구의 공간을 통해서 협객이 독자를 대신하여 정의를 펼치는 일종의 대리만족을 갈망하는 대중들의 영웅에 대한 꿈이 무협소설을 찾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독자들은 협객과 함께 강호를 거닐고 그와 더불어 사회의 불평등한 사건들을 해결함으로써 모종의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이 소설의 외적인 요인이라면, 내적인 요인으로 무협소설 장르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겠다. 金庸을 비롯한 대부분의 무협소설은 그 시대배경을 청말 이전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소설 속에는 최대한 당시의 풍속, 지리, 사회, 문화, 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그 시대에 근접하는 생활상을 그려내게 된다. 때문에 강호는 과거의 시점과 현대적 요소를 아울러 지니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호에서 자유롭게 거닐고자하는 협의 본질적인 성격과 봉건적인 소설의 시대배경과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爲國爲民, 俠之大者”에 관한 의미적 해석을 찾을 수 있겠다. 자신의 안위와 득실을 돌보지 않고 칼을 뽑아 도움을 주는 것은 협의 본성이 라면, 義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드높이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만 표현되

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비롯한 師門, 우정, 애정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충절을 다하는 것에 표현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樊和孚는 《中國文化概論》에서 “중국 전통 도덕 가운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역대로부터 줄곧 커다란 절개로 여겨져 왔다. 비록 봉건 사회에서 이러한 관념은 忠君과 하나로 연계하여 시대적인 국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君을 국가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忠君의 뒷면에는 보다 깊은 의미의 국가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²⁶⁾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忠의 대상이라 하겠는데, 역대로 忠의 관념이 강조되어 지면서 忠은 곧 忠君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다. 그렇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고대의 君은 곧 국가를 상징한다고 하겠고 그래서 忠君은 忠國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金庸 소설 속에서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한 岳飛와 袁崇煥 등은 시종 영웅으로 칭송되며 그들의 애국정신과 행위 또한 작가에 의해 줄곧 추앙되어졌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宋의 高宗과 秦檜, 明의 崇禎 등 폭군과 간신에 대해서는 시종 비판과 질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봉건시대에 군주는 일개 개인의 신분이 아닌 한 민족과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주에 충성을 한다는 개념은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국가와 민족이 위난에 직면하였을 때는 더더욱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金庸의 무협소설의 주요한 사건의 발생과 갈등의 발단은 국가와 민족간의 분쟁을 두고 전개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反清復明을 부르짖던 시기의 《書劍恩仇錄》의 陳家洛, 宋·元 왕조 교체시기의 《射雕英雄傳》의 郭靖, 明·清 왕조 교체시기의 《碧血劍》의 袁承志 등은 모두 혼란한 시대 배경을 그 활동 무대로 하고 있다. 혼란한 시대 배경은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고, 영웅은 자신의 生死禍福을 뒤로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는 俠의 본질적인 성격이며 강호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26) 張岱年·方克立主編, 《中國文化概論》(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 285쪽.

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은 公私의 선후경중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 《神雕俠侶》의 楊過의 갈등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는데, 楊過는 郭靖·黃容 부부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을 품고 줄곧 복수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楊過는 후에 점차로 그의 부친 楊康이 민족을 배신하고 원수를 아비로 여기는 사람이었지, 결코 그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대영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또 아버지를 죽인 원수 郭靖은 오히려 영웅의 기질을 지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협의도임을 발견하고 결국 복수를 포기하게 된다. 金庸 소설 속에서 郭靖은 전통 윤리 도덕 사상에 의거하여 창조한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를 통해 표현된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것이 협의 큰 것이다(爲國爲民, 俠之大者)”는 신념은 金庸의 협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겠고, 楊過가 부모의 복수를 포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협은 조정의 왕법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족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국은 두말할 것 없이 충군에 비해 훨씬 쉬이 현대 독자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²⁷⁾ 곧 무협소설에서 협객의 형상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군주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보다 훨씬 현대인들의 구미와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金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무협소설 작가들은 협객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忠이 지향하는 대상을 가능한 한 전체 민족과 국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忠에 대한 의미의 확대 이외에 金庸은 협과 봉건 禮法과의 충돌을 묘사하고 있다. 협은 자유와 낭만을 추구하며 세속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강호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되고 실현되어 진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협은 강호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며 이 세계를 행보하거나 존재하진 못한다. 말하자면 강호는 또 하나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협은 강호라는

27) 陳平原, 《陳平原小說史論集》(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1054 쪽.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과에 귀속되거나, 혹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지거나, 내외적인 윤리 관념에 지배를 받게 된다. 《神雕俠侶》에서 楊過는 小龍女에게 스승의 예를 올리고 두 사람은 活死人墓에서 은둔하면서 깊은 연정을 품게 된다. 사제관계의 연정은 活死人墓라는 세외 공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일단 강호에 나온 이후 사제관계라는 본질적 문제는 그들의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사제관계라고 시인하지 않았는가. 설마 두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여 인륜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 바로 이 점은 중대하지만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楊過가 비록 正人君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토록 그릇된 일을 멋대로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송나라 사람들은 예법을 가장 중시했는데, 사제관계에서 높고 낮음 반드시 지켜져야 했는데, 君臣 父子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거스르거나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黃蓉은 비록 의심되는 점이 있었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순간 믿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楊過에게 다시 물었다. “過야, 龍아가씨가 정말 너의 사부란 말이나?” “예, 그렇습니다!” “너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부로 모시는 예를 행했느냐?” “예!” 그는 입으로는 黃蓉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시선은 小龍女를 향하고 있었다. 얼굴 가득히 파사하고 부드러우며 희열에 찬, 깊이 사랑하는 표정이 드러났다. 黃蓉처럼 남달리 총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결코 보통 사제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²⁸⁾

여기서 먼저 전제할 것은 宋代라는 시간적 배경과 사제관계라는 인간관

28) 但他們明明自認師徒，難道兩人行止乖悖，竟做出逆倫之事來？這一節卻大是難信。心想楊過雖然未必是正人君子，卻也不致如此胡作非爲。宋人最重禮法，師徒間尊卑倫常，看得與君臣·父子一般，万万逆亂不得。黃蓉雖有所疑，但此事太大，一時未敢相信，於是問楊過道：“過兒，龍姑娘真的是你師父嗎？”楊過道：“是啊。”黃蓉又問：“你是磕過頭，行過拜師的大禮了？”楊過道：“是啊。”他口中答覆黃蓉，眼光卻望著小龍女，滿臉溫柔喜悅，深憐密愛，別說黃蓉聰穎絕倫，就算換作旁人，也已瞧出了二人之間絕非尋常師徒而已。(《神雕俠侶》，제14회, 493-494 쪽)

계의 틀이다. 이러한 내외적인 요인은 강호의 긴장을 촉발하고 협의 행보를 제약한다. 곧 강호는 국법의 영향력 밖에서 협의에 자유와 낭만을 제공하지만, 보편적인 시대 풍속과 관념의 틀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天龍八部》에서 段譽를 사부로 삼은 南海鱗神은 끝내 사제관계를 부정하지 못하고 결국 이로 인해 희생당하였고, 《笑傲江湖》에서 사부 岳不群이 위선자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제지간의 예를 다한 令狐冲 등에서 쉽게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시대 관념의 제약에서 인성의 회복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楊過와 小龍女는 사제지간에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강호 예법에 대항하며 그들의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郭靖 부부의 반대에 맞선 楊過의 “난 잘못하지 않았어요! 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²⁹⁾라는 호소는 봉건 예법과의 충돌에서 오는 협의 절규라 하겠다. 결국 楊過와 小龍女는 시종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소설의 결미에 함께 은거하는 것으로 유종의 결말을 맺는다. 이는 한편으론 무협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자 장르적 한계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협의의 자유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소설의 시대 배경에 맞는 시각으로 본다면 강호에서 봉건 예법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지만, 문제는 현대 독자들에게 이를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가이다. 金庸은 시대배경에 의거한 전통 예법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협의의 자유로운 형상과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예법의 해석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29) 我沒錯! 我沒做壞事! 我沒害人!(《神雕俠侶》, 제40회, 498쪽.)

V. 나오면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金庸 무협소설이 지닌 함의를 몇 가지 측면으로 짚어 보았다. 문학작품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독자는 작품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각기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게 된다. 도시화, 상업화를 거치면서 작품의 대중성과 오락적인 면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한 것은 이면에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 무협소설에서 협은 기계적인 형상을 벗어야했고, 강호 또한 이상향만을 지향하는 것을 탈피해야만 했다. 이는 시대적이고 문학사적 요구라 할 수 있겠다

협과 강호라는 가상의 인물과 공간에서 독자들은 영웅의 꿈을 꾸며 대리만족을 찾는다. 金庸 무협소설이 흡입력을 지닌 것은 협에 대한 전통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인 가운데 이를 현대적 의미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협의 이타주의 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작용을 꾀한 것이란는지, 강호라는 공간을 통해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 국제주의와 평화주의를 주장한 것과, 전통 예법에 대한 비판과 수용을 시도한 점 등 현대 사회에 결핍된 사상을 무협소설과 협의정신을 통해 보충하고자 했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선과 악 나뉘는 이원적인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성을 강조하여 보다 현실에 근접한 협과 강호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金庸의 무협소설이 널리 읽혀져 오고 있다. 이러한 독서 현상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비판과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본고를 통해 무협소설을 보다 객관적으로 대하고 왜 무협소설을 읽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 江堤·楊暉編, 《金庸: 中國歷史大勢》(長沙: 湖南大學出版社), 2001.
- 董誥編, 《全唐文》(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劉若愚, 《中國之俠》(上海: 上海三聯書店), 1991.
- 汪湧豪, 《中國遊俠史》(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 金庸, 《金庸作品集》(北京: 三聯書店), 1999.
- 劉維群, 《梁羽生傳》(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99.
- 江堤·楊暉編, 《金庸: 中國歷史大勢》(長沙: 湖南大學出版社), 2001.
- 嚴家炎, 《金庸小說論稿》(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溫瑞安, 《金庸茶館》(6)(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1998.
-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北京: 新世界出版社), 2002.
- 陳墨, 《新武俠二十家》(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2.
- 陳墨, 《金庸小說人論》(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1999.
- 宋偉傑, 《從娛樂行爲到烏托邦衝動—金庸小說再解讀》(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9.
- 羅立群, 《中國武俠小說史》(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0.
- 張岱年·方克立主編, 《中國文化概論》(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
- 陳平原, 《陳平原小說史論集》(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 中文提要 >

金庸武俠小說的文化內涵考察

文學作品表現出在特定的時空背景下生存的各種各樣的人群。作者通過創造人物形象, 讀者通過閱讀作品來各自思考人生。雖然經過都市化、商業化, 注重和強調作品的大眾性、娛樂性的一方面, 但不能忽視的是其中不斷地要求對人生的考察和反思。因此, 對現代武俠小說中的俠客受到脫離單調的性格的

要求，避免只追求江湖烏托邦的願望，可以說是對於武俠小說的一種時代的、文學史的要求。

俠和江湖，在這兩個虛擬的人物和空間裏讀者向來追求英雄俠士的出現，以滿足他們內心深處的英雄夢的願望。金庸的武俠小說在充分繼承傳統的俠的概念的前提下，以現代眼光和觀念來解釋，就是通過俠的利他主義來強調俠的社會功能，表現出超越狹義民族主義的國際主義、和平主義的觀念，對於傳統的禮法觀念反思等等。其意義就在於以俠義精神來灌輸在現代社會裏缺乏而需要的精神。另外，擺脫善惡二元對立的敘事結構，強調個人的人性，表現出更接近於現實的俠和江湖的形象。這樣的內涵形成金庸武俠小說特定的文化氛圍。

주제어: 金庸 武俠小說 現代意識 江湖 利他主義 民族觀念 禮法

K C I